

중요민속자료(복식)의 보존처리  
The Conservation Treatment for the Important Folklore  
Materials - Clothes -

한성희, 이규식\*  
Han, Sung Hee and Kyu Shik Lee\*

**ABSTRACT** : The cultural properties of cloth are of animal origin (silk), or of vegetable origin(cotton, hemp, ramie). As clothes are of an organic material, they were subjected to damage by chemical, physical or biological factors, viz, moulds insects, lights, humidity and temperature changes, etc. And these factors promote that clothes generally result from various types of deterioration.

In 1992, We were performed the conservation treatments for total 9 pieces of cloth, such as 3 pieces of General PAK SHIN-RYONG(Important Folklore Material No.110) 3 pieces of Madam Jung(Important Folklore Material No.115) and 1 piece of King Se-jo(Important Folklore Material No.219).

The procedure of the conservation treatment for clothes describe the following below.

1) The washing and dry-cleaning to remove the contaminated substances from cloth was used 0.2% stearyl potassium soap solution and the mixture solution compound of n-Hexane, C<sub>6</sub>H<sub>14</sub>. and n-Decane, C<sub>10</sub>H<sub>22</sub>. And after the washing and dry-cleaning, the dry of clothes was carried out in a warm condition. These steps were repeated in 2 times over for each cloth.

2) The repair of clothes was attached the similar textiles to stronger fabric linings by needlework.

3) The reproduction was made for cloth of King Se-jo to equalize the type, color, quality and skill of materials.

4) After these above procedures, all clothes fumigated to prevent the biodeterioration by using the mixed gas of methyl bromide and ethylene oxide as insecticide and fungicide.

5) Finally for the purpose to keep in a safe long-term condition, the treated clothes sealed with Biaxially Oriented Polyvinylalcohol Film(BO-PVA film) and Helium, purity 99.999%, filled up in sealed BO-PVA film bag.

---

\*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 1. 서 언

섬유류문화재는 재질이 주로 면, 삼베, 모시와 같은 식물성섬유와 견과 같은 동물성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재질에 식물성 염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섬유류문화재의 손상현상으로는 오염물 부착에 의한 오염, 재질의 경화 및 결실, 그리고 염료의 변퇴색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손상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는 광선, 온습도변화 등에 의한 재질의 물리화학적 손상과 더불어 곤충이나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손상을 들수 있으며 섬유류 문화재에는 금속이나 석재문화재와는 달리 충균에 의한 피해를 쉽게 받게 되는 취약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습성이 큰 섬유류 문화재가 다른 문화재와 함께 전시되거나 보존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같은 보존환경내에서 섬유류 문화재는 염료의 변퇴색, 재질의 경화, 취약화와 더불어 충균의 먹이가 되기 쉽고 결실, 손상되게 된다. 또한 섬유류 문화재의 보존처리는 손상된 부위의 원형복원이 불가능하며 오염물의 제거시 재질에 따라 사용되는 세제와 처리방법이 달라지므로 섬유류 문화재는 사후 처리보다는 예방적 보존처리가 다른 재질의 문화재보다도 필요하다.

본처리에서 섬유류 문화재의 보존처리는 수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배상경교수의 자문을 받아 실시하였으며 복원품제작은 부산여대 의상학과 홍나영 교수가 담당하였으며 그리고 향후 손상에 대한 예방조치를 실시한 내용에 대해 기술하였다.

## 2. 보존처리 대상(3건 9점)

- (1) 중요민속자료 제 110호 傳 朴信龍將軍 衣帶 4점
- (2) 중요민속자료 제 115호 李洞未人 東築鄭氏 衣服 4점
- (3) 중요민속자료 제 210호 世祖代の 白綯回獎赤古里 1점

## 3. 보존처리 대상 유물의 보존실태

### (1) 중민 제 110호 전 박신통장군의대 4점

유물은 담배잎과 함께 비닐주머니에 넣어 나무상자속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유물 염료의 변퇴색이 심하였고 부분적으로 얼룩이 발생되어 있었고 재질이 습한 상태에 있으며 특히 전복의 안감은 충해에 의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음.

### (2) 중민 제 115호 이형부인 동래정씨 의복 4점

유물은 비닐로 싸서 여행용 가방에 넣어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유물은 훼손이 심하여 내부의 솜이 터져 나오고 결실된 부위가 많이 발생되어 있었다.

### (3) 중민 제 210호 세조대의 백초회장저고리 1점

유물은 보장각내 유리진열장내에 진열되어 있었으며 유물은 재질이 위약화 되어 있었고 저고리 안팎의 앞설푸리와 왼쪽 길, 회장 그리고 뒷편 중심선 중앙부위가 충해를 받아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 4. 복식의 형태 및 특징

##### (1) 박신룡장군 의대

박신룡장군은 연혁이 뚜렷하여 더욱이 나라에 충을 다한 무장으로서 후손과 동지들에 의해 유의각이 건립되었고 그곳에 장군의 유물의 의대 4점을 보관하였다. 이 의대들은 장군이 생존시(1575-1627년) 착용하셨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복식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 ① 관복

북청색의 모시로 만든 홑겹 단령이다. 목의 파임이 상당히 큰 편이고 넓은 두리소매로 되어 있다. 소매통이 대단히 넓고 옷의 폭도 넓은 편이다. 그리고 관복의 보존상태는 다른 것과 비교할 때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 ② 천릭 2점

조선중기 무신의 공복으로서 재질은 명주이고 홍천릭은 허리의 절개선이 43cm로 조선시대를 통털어 볼 때 중간 길이를 나타낸다. 또한 화장이 109.5cm나 된다. 대조적으로 옷고름이 넓으며 짧아 저고리의 고름과 같으며 홍천릭의 裳의 전체폭이 지나치게 넓지 않아 간단한 느낌을 준다.

청천릭은 홍천릭과는 동시대 동일인이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즉 화장이 홍천릭보다 10여cm나 더 길고 전체길이도 길다. 그리고 잔주름이 많이 잡히므로 또한 裳의 폭도 풍부하게 넓어 홍천릭과 비교되며 한지로 동정을 달았다. 소매배래는 완전 직선이고 袖口가 모두 열려 있다. 이와 같이 직선소매이고 袖口가 따로 마무리되지 않은 옷을 상당히 많이 볼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여기서는 확실히 밝힐 수는 없지만, 시대가 아주 오래된 深衣에서도 수구를 따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수구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③ 전복

전복은 습衿으로 등근 깃에 동정이 봉재되었으며 옆선에 넓은 무가 달렸고 등뒤는 절개되었다. 두겹으로 겉감은 진청색, 안감은 흰색으로 겉보다 안의 직물이 매우 상하였는데 이유는 충해(Silver fish)에 의한 심한 잠식인 것으로 사료되며 재질이 부스러질 정도이나 탈염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 ④ 대

홍색과 청색이 있는데 재질은 명주이다. 길이와 폭은 각각 230cm 폭6.5cm, 236cm 폭8.5cm, 260cm 폭 7.5cm로 모두 겹으로 되어 있고 대의 색은 옷과 약간씩 차이가 있다.

## (2) 이형부인 동래정씨 의복

高林君의 孫 “洞”의 配位이신 정정부인 동래정씨가 1583년이전에 착용했던 것이다. 정씨부인의 의복은 백목면남의상 1점, 명주남의상 2점, 명세남의직령포 1점, 내친상 2점이다. 이 의복은 착용년대가 임진왜란인데 직령포의 동정넓이가 4cm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시대의 포 중에서도 동정이 가장 좁다. 이것은 정씨부인이 한양에 살고 있었고 왕종의 가문이기 때문에 여타 지방 반가의 의복에 비하여 변화의 유형이 다소 앞선 때문이 아닌가 추측한다.

### ① 명주남의상 2점

내부에 솜을 텅게 둔 10폭 치마이다. 상 1점의 누비간격은 5.5cm, 다른 한 점은 2.5cm이다. 뒷면은 곁감천을 가장자리에 넓게 두르고, 중앙에는 목판을 사용했다. 이것은 건이 귀한 시대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자료로 사료된다. 그리고 가장자리는 1.5cm간격으로 상침을 했다. 여기에서 보면 누비간격에 대한 규칙 같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누볐으며 허리끈이 소실되어 있었고 좌우 트인 채로 손상되어 있었다. 치마 중간에는 완전히 없어진 부분들이 있으며 누빔폭이 크며 주름이 거의 없었다.

### ② 내친상 2점

내친상은 허리선에서 좁은 폭의 명주 4폭을 직선으로 봉재하여 2cm간격으로 누볐고 앞에는 바지부리에서 12cm, 뒤는 45cm를 절개했다. 뒷밑에는 삼각형 밑바대를 대었고, 바지부리에는 다른 단을 대고 주름으로 처리했다. 이것은 속치마의 일종으로 앞은 통으로 되고 뒤의 엉덩이선 이하가 터져 있는 것이다. 광주의 김덕령 姪婦 옷에서도 발견되며 최근까지도 이런 속치마를 볼수 있었다 한다. 2점중에서 1점은 밑에서 12cm를 파서 바지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의 의복의 변천제도를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것으로 사료된다.

내친상 2점 모두 누볐으며 좌우 측면이 헤어졌으며 그중 일부는 목면실로 다시 꿰맸거나 녹슨 핀으로 여러 군데 연결해 놓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발굴된후 손을 댔던 것으로 추정된다.

## (3) 세조대의 백초희장저고리

1975년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에서 발견된 저고리 1점의 한국의 복식사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자료가 된다. 그것은 당시의 동자상을 개금하다가 복장품 속에서 발견된 것으로 그 불상은 세조때 만들고 종종때 개수했다 하여 저고리의 착용년대를 종종대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 저고리의 형태와 치수에서 미루어 볼 때 조선초기의 저고리인 것을 알수 있고 이것은 불상을 만들 당시에 넣은 저고리로 보고 있다.

이 저고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저고리를 기점으로 해서 조선초기의 저고리 형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해소되었다. 즉 수의가 아닌 일상복의 저고리도 품이 크고 너그럽게 만들어 입었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저고

리의 전체적인 구성은 세부와 세부간에 균형이 잘 맞도록 구성되어 있다. 깃넓이가 넓고 긴데 비하여 끝동이 아주 넓어 잘 조화가 된다. 그것은 품이 넓은 것과는 잘 어울리는 면이 된다. 또 길고 넓은 목판 깃은 넓은 섶이 잘 받쳐주어 전체적인 균형이 원만하다. 그리고 전통적인 쪽물을 들인 염색이 오백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색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며 현재 한국에 보존되어 있는 저고리 유물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

저고리의 형태는 품이 상당히 넓어서 소매가 짧은 감을 줄정도이다. 그러나 소매길이는 69.5cm로서 결코 짧은 것이 아니고 품이 워낙 넓어서(34cm) 저고리의 길이까지도 별로 길게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소매는 직선형태로 조선중기 이전의 저고리에서 보이는 형태이고, 소매통은 29cm로 상당히 넓다. 이렇게 품이 넓어서 전체적으로 너그러운 저고리는 조선초기의 저고리가 보여주는 하나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 저고리 뒷중심선 왼쪽에 “張氏小對”의 목서가 있어 왕비의 저고리인 것을 알수 있다. 백색명주의 길(胴)에 淡靑의 소매와 섶, 깃과 주단은 鴉靑色花紋緞이고, 무, 옷고름으로 구성되었다. 깃이 길어서 완전히 내어 달린 목판깃이고 특히 안섶이 2중으로 된 점이 주목된다.

## 5. 복식유물의 보존처리

본 복식유물의 보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의복 재질에 따라 세척용 용제를 선택하여 의복의 오염물 제거를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로 충균에 의한 생물학적 피해예방을 위하여 살충살균 처리를 실시한 다음 염료의 변퇴색을 억제하고 습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밀성이 우수한 이축연신비닐필름으로 유물을 각각 포장하고 그 비닐내부에 불활성 가스인 질소가스(99.9995%)를 충전하여 밀폐하고 세 번째로 특수보관용 오동나무상자를 제작하여 유물을 보관토록 하였다. 특히 재질이 위약화되어 전시가 불가능한 유물은 복원품을 제작하여 대신 전시토록 하였다.

### (1) 세척용제의 선택

의복에 부착된 오염의 대부분이 유지와 먼지, 기타 고형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유기용제와 함께 기계적 힘이 작용하면 유지분이 제거되면서 이들 유지분을 매개로 부착된 고착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건식세탁은 물을 사용한 습식세탁으로부터 생기는 장해를 피하면서 세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건조세탁은 건조가 빨라 짧은 시간에 세탁을 완료할 수 있고 대부분의 염료가 유기용매에는 용해되지 않으므로 퇴색과 세탁중에 염색된 다른 옷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어 여러 가지 색상의 옷을 세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식세탁의 세탁의 역할을 하는 것은 유기용제의 용해력과 기계적 힘뿐이므로 유기용제에 용해되지 않는 수용성 오염, 즉 친수성 오염은 잘 제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셀룰로오스 섬유중 무기염류, 탄수화물, 단백질 등의 오염에 대하여서는 세탁능력이 저하된다.

유기용제는 탄화수소계, 석유계, 할로젠화 탄화수소계로 구분하는데 본처리에는 탄화수소계 용제를 선택하였다.

탄화수소계의 대표적인 용제는 다음과 같다.

#### ① 헥산

헥산(n-Hexane,  $C_6H_{14}$ )은 각종 유지의 좋은 용제로서 순수한 화학물이므로 일정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끓는점 :  $68.74^{\circ}C$ , 인화점 :  $-22^{\circ}C$ , 발화점 :  $234^{\circ}C$ 으로 인화성이 크다. 독성은 비교적 작아서 TLV(threshold limit value : 1일 8시간 작업하여도 안전한 공기중의 한계농도)가 500ppm이다.

#### ② 데칸

데칸(n-Decane,  $C_{10}H_{22}$ )은 헥산에 비해 끓는 점이 높아 휘발성이 적고 인화점과 발화점이 높아서 보다 안전하다. 끓는점 :  $174^{\circ}C$ , 비중 : 0.7298, 인화점 :  $54^{\circ}C$ 이다. 단독 또는 다른 성분과 혼합한 합성용제가 건식세탁에 쓰이나 석유계 용제보다 값싸다.

### (2) 오염물 세척

#### ① 박신룡장군 의대

##### 가. 관복 1대

곡형으로 진한 쪽대 모시이므로 물세탁을 실시하였다. 세탁시 사용한 세액은 stearyl 나트륨 비누액 0.2% o.w.f., 액비 1:10, 온도  $4^{\circ}C$ 로 2회 실시한후 음지에서 자연건조시켰다.

##### 나. 전복 1점

전복은 이겹으로 겉감은 청자색, 안감은 소색으로 겉보다 안의 직물이 매우 상하였으며 재질이 약해서 부스러질 정도이나 탈염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부피성이 적고 약한 상태이므로 polyethylen film에 길게 말아서 상기의 방법으로 2회 세척을 실시하였다. 세척과정중 재질의 약화된 상태를 고려해서 agitation을 생략했다.

##### 다. 천릭 2점

천릭은 홍색과 청색인 2점으로 홑겹명주로서 주름은 많으나 부피성은 적다. 각각 작게 말아서 유리칼럼이나 표본병에 넣고 n-Hexane과 n-Decane를 2:1로 섞은 세척액을 깔대기를 통해 노즐로 흘려 보내어 천릭이 온전히 침전될때까지 세척액을 충분히 채운다. Magnetic Stirrer와 spin bar을 이용하여 세척액을 일정하게 회전시키면서 약간의 세척력을 가해준다. 30분간 세척액에 침전시킨후 n-Hexane은 상온에서 증발시킨후 음지에서 자연건조 시킨다. 이러한 세척과정으로 2회 세척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접혀지거나 구겨진 부분은 n-Hexane으로 적시면서 평평한 유리판 사이에 넣어 의복의 구김을 방지하였다.

##### 라. 대 3점

대에 대한 세척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3점의 대를 각각 등글게 말아서 천릭의 세척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3회 반복하여 세척한 후 접혀지거나 구겨진 부분은 n-Hexane

으로 적시면서 평평한 유리판 사이에 넣어 대의 구김을 방지하였다.

#### 마. 다름질

견직물은 열에 약하므로 다리미 온도를 낮게 하고 스프레이에 증류수를 약 20-30℃로 하여 넣고 다리미대로 부터 약 15cm 정도 높이에서 공기중에서 분무하였으며 습열 다름질을 하되 천을 대고 간접적으로 하며 가볍게 다름질하여 섬유가 눌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다름질하였다. 관복은 모시이므로 고온고습에 강하므로 천을 깔고 다름질하였다.

#### ② 이형부인 동래정씨 의복

명주납의상과 내친상은 부피가 큰 관계로 수조에서 세척액에 의한 완전침지를 실시하였다. 세척액은 n-Hexane과 n-Decane을 2:1로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30분간 세척액에 침전시킨후 세척액을 상온에서 증발시킨후 음지에서 자연건조시켰다. 이러한 세척과정을 2회 반복 실시하였다.

#### ③ 세조대의 백초회장저고리

저고리는 부피가 큰 관계로 수조에서 n-Hexane과 n-Decane을 2:1로 섞은 세척액에 의한 완전침지를 실시하였다. 저고리 재질의 약화로 세척액을 회전시키는 agitation은 생략하였으며 30분간 세척액을 침전시킨후 저고리를 세척액으로부터 꺼내서 건조대 위에 올려놓고 상온에서 세척액(n-Hexane과 n-Decane 혼합액)을 증발시킨 후 음지에서 다시 저고리를 자연건조 시켰다. 이러한 세척과정을 2회이상 반복 실시하였고 저고리의 접힘과 구겨진 부분은 n-Hexane으로 적시면서 평평한 유리판 사이에 넣고 방치하여 대의 구김을 뺐다.

### (3) 보수 및 마무리

세척에 의한 오염물 제거가 완료된 후 이형부인 동래정씨 의복 4점만을 재질과 유사한 흰색의 생견직물과 소재 정련 견직물, 견봉사, 부직포, 면실을 이용하여 부분 보수를 실시하였다.

#### ① 내친상(I) 보수부위의 치수

가. 좌우 옆자락 끈(slide line)

3cm(폭)×41.5cm(길이) : 겉쪽

2cm(폭)×41.5cm(길이) : 겉쪽의 뒷면

나. 좌측 옆자락 끈(slide line)

3cm(폭)×40.5cm(길이) : 뒤쪽

다. 우측 옆자락 끈(slide line)

3cm(폭)×61cm(길이) : 앞쪽

9.2cm(폭)×61cm(길이) : 앞쪽의 뒷면

3cm(폭)×57cm(길이) : 뒤쪽

뒷판에 21cm×18cm의 사각형 보수처리

#### ② 내친상(II) 보수부위의 치수

가. 앞자락 보수부분

3cm×98cm, 12cm×67cm, 12cm×85.5cm

나. 뒷자락 보수부분

3.5cm×18cm(이면 5cm×17cm),

7cm×68cm, 7×69cm

③ 명주납의상(Ⅰ) 보수부위의 치수

허리끈은 새로 만들어서 달았으며 주름폭은 약 3cm로 잡았다.

보수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옆자락 선 : 폭 4.2~6.2cm×90cm

나. 이면의 폭 : 3.2~5.5cm×90cm

다. 중간에 터진 곳은 11~12cm×87.5cm이며

뒷면의 부직포를 대고 8.5~10.2cm×87.5cm로 대었다.

이외의 중간 보수부분은 폭 16cm×길이 19cm이다.

④ 명주납의상(Ⅱ) 보수부위의 치수

가. 좌우 옆자락(slide line)

3.2cm(폭)×43cm(길이) : 겉쪽

4.7cm(폭)×47.5cm(길이) : 겉쪽의 뒷면

1.5cm×11cm(2개)

#### (4) 세조대의 백초희장저고리 복원품 제작

복원품 제작은 의복의 형태, 염색, 재질, 봉재접 등을 가능한 한 원품과 동일하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첫 번째로 크기는 유물의 크기와 동일하게 제작하였다. 둘째로 재질은 무명, 명주, 생명주, 모시는 과거의 굵기, 폭과 유사한 것을 가능한 사용하였고, 문양이 있는 부분은 가장 유사한 재질로 판단되는 것을 사용하였다. 네 번째로 염색은 각 재료의 생물을 통하여 천연 쪽염색을 실행하였다. 다섯 번째로 봉재는 모두 손바느질하였다. 명주의 경우 호아서(반박음질) 인두질하였다. 그리고 저고리 복원품 제작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① 소매와 끝동을 연결하고 시접은 소매쪽으로 처리한다.

② 소매의 앞, 뒤를 옆무를 연결시키고 시접은 가름솔로 처리한다.

③ 길과 소매, 옆무를 연결하여 소매쪽으로 처리한다.

④ 뒷길을 연결하여 솔기를 오른손쪽으로 처리한다.

⑤ 앞길에 안섷과 겉섷을 연결하여 안섷의 솔기는 길쪽으로, 겉섷의 솔기는 섷쪽으로 처리한다.

⑥ 깃을 단다.

⑦ 안고름과 겉고름을 단다.

⑧ 밑단은 1번 감아 공구르기 한다.



## (5) 훈증처리

오염물 세척과 보수가 끝난 복식유물 원품과 복원품에 대한 충균등과 같은 생물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증처리를 실시하였다. 세척 및 보수가 끝난 복식들은 훈증처리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한지로 싸서 포장하여 훈증약제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얼룩발생을 피하였고 두께 0.3mm 비닐로 유물을 완전히 피복하여 공기의 유통을 차단하였다. 훈증제(Ethylene oxide와 Methyl bromide 혼합가스)를 투약하기 위하여 가스주입용 호스를 기화기에 연결하고 가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비닐접합부위를 특수테이프로 접착하여 완전 밀봉하였다. 훈증을 실시하는 동안 훈증피복내 훈증가스의 농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시간별로 농도를 체크하였으며 적정농도(60ppm)이하일 경우 훈증가스를 재투약하여 적정농도를 유지하였다. 훈증은 상압에서 계절, 특히 온도에 따라 살충살균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낮을수록 훈증처리를 연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유물의 훈증처리는 92년 12월중에 실시하였으므로 72시간이상을 유지하였다.

## (6) 이축연신비닐필름 밀폐포장

섬유류 유물의 손상은 가해생물에 의해 피해가 심하므로 일반 관리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담배잎을 함께 넣어 보관하거나 또는 일반비닐로 싸서 가해생물의 침입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가해생물에 의한 피해는 줄일 수가 있으나 내부의 공기유통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외부의 습기가 내부로 들어가면 외부로 다시 유출되지 못하여 결국 유물에 습기를 공급하는 효과가 되어 재질의 함수율을 높이게 되며 또한 함께 넣은 담배잎액이 유출되어 유물의 오염을 촉진시키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보존과학연구실에서는 훈증처리가 끝날 유물은 기밀성이 우수한 이축연신비닐 필름으로 완전 밀폐보장을 하고 비닐필름포장속에는 불활성 질소가스를 적정량 주입하여 외부의 습기침입, 내부의 복식유물의 화학적 변화, 그리고 외부의 충균, 먼지 등의 침입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현재 온습도 조절을 하고 있지 않는 환경내에서도 외부로부터 가해충균의 침입 방지, 외부습기의 침입방지 그리고 내부의 화학적 변화로 인한 염료의 변퇴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7) 복식유물의 보관

섬유질 유물은 대체로 광선, 온습도변화, 공기중의 유해가스, 먼지, 가해생물 등에 의해 재질의 위약화, 염료의 변퇴색 등으로 유물이 손상을 받게 되며 협소한 공간내에 섬유질 문화재를 접어서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접힌 부위가 경화되어 그 부위가 쉽게 손상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에 유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처리대상 유물의 보관상태는 매우 불량한 편이므로 이러한 보관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수보관용 오동나무상자를 제작하여 보존관리를 용이하게 하였다.

## 6. 결 언

섬유질유물은 재질이 유기질이므로 여러 가지 손상요인에 의해 발생된 재질의 경화, 충균에 의한 결실 등이 발생된 부위는 원상으로 복원될 수 없는 재질의 구조적 취약성이 있으며 또한 환경내 각종 오염인자에 의해서도 섬유질 유물은 섬유표면에 발생된 오염 및 변색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섬유질 문화재의 보존처리는 주로 섬유의 표면에 발생된 오염이나 변색부위의 제거에 국한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재질상태가 양호할 때에만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섬유내부의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발생된 손상에 대한 보존처리는 세계적으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섬유류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섬유표면의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제의 선정, 세척방법의 강구 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섬유내부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보존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의뢰받은 중요민속자료(복식)의 보존처리를 하기위

해서 1992년 8월 10일부터 동년 12월 29일까지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 각 복식유물의 오염물세척과 더불어 수리복원, 복원품제작, 충균의 가해방지를 위한 훈증처리, 이축연신비닐필름 밀폐포장 및 오동나무상자 제작 등의 보존처리과정을 통하여 일반 소장가들에게 섬유류 유물의 보존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끝으로 섬유류 유물의 보존을 위해서는 섬유내부의 구조적 변화를 예방하는 보존환경의 설정이 중요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섬유류 문화재의 보존환경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밀성이 우수한 이축연신비닐필름에 의한 포장과 더불어 내부에 온습도를 제어할 수 있는 조습제를 투여하면 온습도조절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도 어느 정도 포장내에서 적정습도의 유지가 가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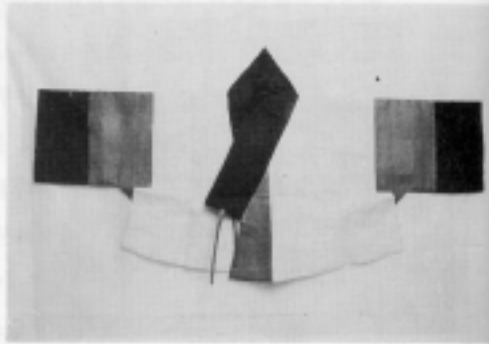
중민 제115호 이형부인 동래정씨  
명주남의상(Ⅰ)



중민 제115호 이형부인 동래정씨 내친상(Ⅰ)



중민 제115호 이형부인 동래정씨 내친상(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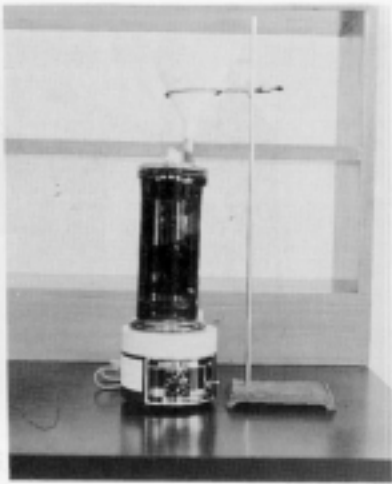
세조대의 백초회장저고리 복원품 전면



중민 제219호 세조대의 백초회장저고리  
안쪽의 훼손상태



박신룡장군 흥천리의 세척과정  
(흥천리를 세척액속에 완전침전시킨 상태)



박신룡장군 전복의 세척과정  
 (표본병속에 전복을 넣고 세척액을  
 여과시키면서 부어서 완전히 잠기도록 하고  
 세척액을 교반하여 세척력을 높이고 있음)



세척등 보존처리가 완료된 박신룡장군 청천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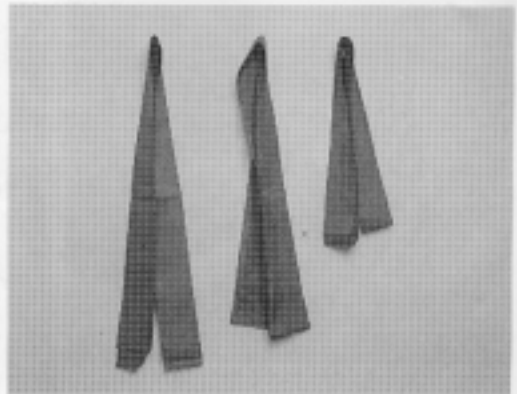
세척등 보존처리가 완료된 박신룡장군 흥천릭



세척등 보존처리가 완료된 박신룡장군 관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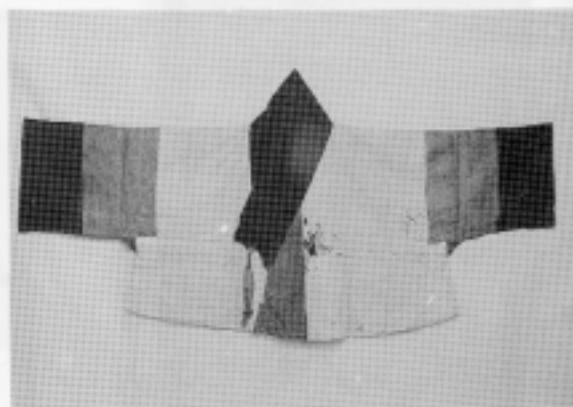
세척등 보존처리가 완료된 박신룡장군 전복



세척등 보존처리가 완료된 박신룡장군 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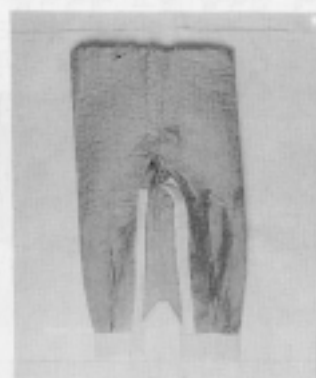
명주남의상의 세척과정



보존처리가 완료된 세조대의 백초화장저고리



보수완료된 내친상(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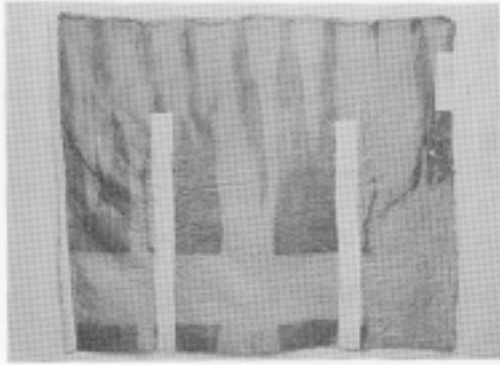
보수완료된 내친상(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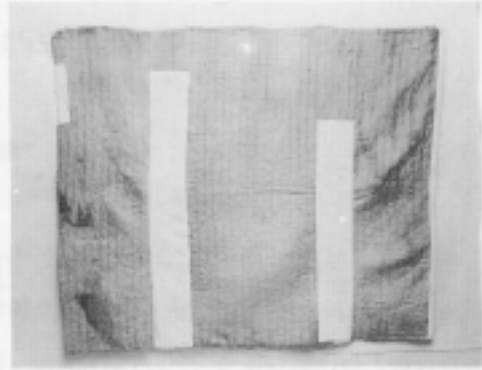
보수완료된 명주남의상(Ⅰ) 전면



보수완료된 명주남의상(Ⅱ)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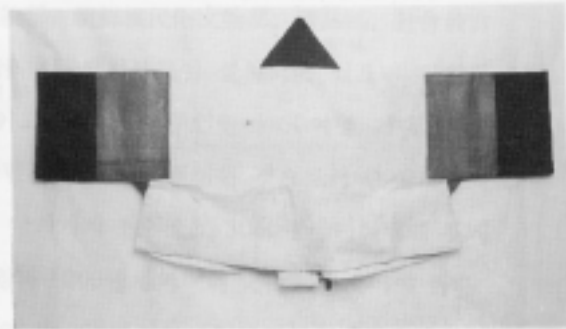
보수완료된 명주남의상(Ⅰ) 전면



보수완료된 명주남의상(Ⅱ) 뒷면



중민 제219호 세조대의 저고리 전면



세조대의백초회장저고리 복원품 뒷면